

# 動物災害와 防除策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主 催



## 동물 해개관

서울대 문리대 교수  
강 영 선

우리나라에 있어 쥐와 松虫 등 有害동물에 의한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바가 있다. 쥐는 연간 300만석의 農作物을 먹어 없앨 뿐 아니라 豆粕를 배척하며 병원체를 전파하여 人間에게 직접해를 끼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개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근자에 송충의 창궐로 가뜩이나 황폐해가는 산림의 파괴에 더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動物害는 이제 바야흐로 공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유해동물 중에도 특히 쥐와 송충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황과 적절한 방제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며 토론해 볼까 한다.

## 솔잎 흑파리의 被害 現況과 防除策

高 濟 鎬



솔잎 흑파리가 처음 發見된 것은 40年前 木浦地方 이며 現在慶南地方이 제일 큰 被害를 입고 있어 一帶의 林野를 變장게 만들고 있다.

솔잎흑파리의 만연은 강물에 따라 간다고 하나 實地 研究한 結果 바람을 타고 번져가고 있음이 確實하다. 다른 害虫에 비해 솔잎흑파리의 除虫劑가 없기 때문에 그 被害는 더욱 커감에도 송충보다 關心을 두지않고 있는 實情이다.

서울 近郊의 솔나무가 原因모르게 變장게 말라 죽는 것은 거의 이 솔잎 흑파리 때문인 것이다. 松虫이나 美國나방같은 食葉性 害虫은 週期的인 面이 있지만 솔잎 흑파리는 만성의이어서 얼른 나타나지 않으면서 큰 被害를 주고 있다.

솔잎 흑파리는 습기에 強하지만 乾燥에는 弱한 害虫이며 번식율이 大端할 뿐 아니라 寒冷에 強해서 여름 속에서 越冬을 할 수 있다.

研究實績을 보면 日本 小田久五가 1953년에 三浦正가 1962년에 각각 研究論文을 發表한 바 있고 美國과 獨逸에서도 솔잎 흑파리에 對한 研究發表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解放以前에 (日人) 高木五六氏가 研究를 했고 김창환, 이덕상, 소도설 諸氏의 研究가 發表됐다.

防除策으로는 솔잎 흑파리는 乾燥에 약하기 때문에 습기를 없애는 方法과 農藥으로는 B.H.C를 살포하는 方式 등이 있다 그러나 問題點은 생 態상의 特

徵으로 藥劑 驅除가 어렵고 만성적인 被害를 주는데 있는데 그 對策으로는 集團動態의 構成으로 支配抑制因子의 究明과 特効藥의 開發이 時急하다 하겠다.

## 松虫의 被害

高大理工大學長  
金 昌 煥

綠化運動을 벌리고 있는 이때 더우기 植木日을 앞두고 있는 만큼 綠化의 敵의 하나인 松蟲의 被害를 살피는 것도 뜻있는 일이다.

休戰線以南의 山林面積은 670餘萬町步로써 全面積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山林綠化를 통한 國土保全의 必要性 때문에 積極的인 造林을 장려하고 있다. 農林部統計에 의하면 1962년에는 13萬5千餘町步에 47萬木을 造林함으로써 蓄積量을 町步當 平均 12.04mm<sup>2</sup>로 올렸다. 이렇게 많은 造林을 年年 계속하고 있으나 綠化는 아직도 遼遠하다. 人間에 의한 害도 크지만 動植物에 의한 被害가 至大하다. 1962년의 調査에 의하면 林野의 總被害面積은 38萬町步被害量은 9萬7千餘m<sup>2</sup>이고 1963년에는 48萬餘町步 141萬8千餘m<sup>2</sup>에 달하며 金額으로 따져 25億원에 달한다. 이런 被害中 動植物에 의한 被害가 가장 많아 平均 60% 이상을 차지하며 主로 松虫, 솔잎 흑파리등에 의하며 그 中에서도 松虫發生은 面積으로 따질때 每年 全被害額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松虫은 솔잎 特히 4~5年生 幼齡木의 것을 선택적으로 食害하므로 枯死, 生長障害, 林質惡化를 招來하고 2次的 昆虫被害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

松虫은 오랜 記錄으로는 肅宗 29年(17